

“공공·비영리 포괄 ‘회계기본법’ 제정… 감사품질 높일 것”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취임 1주년

“李 대선평약에 ‘회계기본법’ 포함
2~3년 기간 두고 단계적 제정”

“감사계약 단가 30% 인하 구조
빅4, 책임감 갖고 단가 지켜야”



최운열 회장이 한국공인회계사회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강조한 메시지는 분명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국내 회계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고, 회계의 공공성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했다. 그 핵심에 ‘회계기본법’ 제정이 있다. 공공·비영리 영역까지 포괄하는 통일된 회계 기준과 감독체계를 통해 국가 전반의 회계 인프라를 재정비하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회계정책은 소관 부처도, 적용 기준도 각기 달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회계기본법은 국가 차원의 회계정책을 일관되게 수립·집행하는 틀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공기관, 소규모 기업, 공익법인 등 다양한 주체에 공통의 회계 원칙을 적용해 감사 품질과 회계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해부터 관

련 연구에 착수해 회계기본법의 법체계 구조 분석을 마쳤고, 하반기부터는 2차 연구에 돌입한다. 이 단계에서는 해외 입법례와 국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비교 분석하고, 회계 주체별로 필요한 조항과 입법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회계기본법이 포함돼 있어 입법 추진의 명분은 충분하다”며 “제정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 노력은 법 제정 외에도 다양한 현안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시 조례 개정 문제다. 서울시는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

한국공인회계사회 중점 추진사항		
선결 과제	공약사항 회원의 든든한 버팀목	
공인회계사 자정노력 강화 경영금지 위반 가족 가공급여 지급 재무제표 대리작성 위반 고의적 분식회계 동조 등	회계제도 개혁 완성 주기적인 지정제 유예 합리화 등록법인 감리 예측가능성 제고 회계기본법 제정 추진	상생 생태계 구축 실질적 상생협력 방안 모색 다양한 회원 간담회 정례화
	청년·여성 공인회계사 위상 강화 청년위, 여성위 확대·재편	지방 및 감사반 지원 세무사와 공정경제 지원
공인회계사 직업윤리 위반행위 발생 시 퇴출방안 마련	신규 활동영역 극대화 ESG인증 전문가 역량 확보	한국회 위상 재정립 대외 위상 강화(사회적 책임 이행)

자료/한국공인회계사회

산서 검사’로 대체하면서,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손질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회계사와 세무사의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의 차이만큼이나 다르다”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이는 회계 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공인회계사회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위탁사업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그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동일한 내용을 발의하고 있고, 국고보조금법에도 유사 조항이 존재해 입법 가능성은 높다”고 내다봤다.

감사 수입가 하락 문제에 대한 경고

도 나왔다. 최 회장은 “감사계약을 따내려면 기존 단가보다 30% 이상 낮춰야 한다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삼성 전자처럼 규모가 큰 기업도 수입가 인하를 요구받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출혈 경쟁은 회계법인 모두의 문제이며, 빅4부터 책임감을 갖고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 단가를 지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선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비용보다 실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감사 실패는 감사위원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입 회계사의 진입 장벽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그는 “현재 빅4 회계

법인이 수용 가능한 수습 회계사 인원은 약 700명, 전체를 다 합쳐도 800~900명에 불과하다”며 “올해는 작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덧붙이며 경제 상황에 따라 유연한 선발인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정치 아카데미’ 설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정치화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으며, 이는 회계사의 공공 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청년 회계사와 여성 회계사들 사이에서 지방의회나 국회 진출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소양 교육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었다”며 “예산 편성, 입법 절차, 공공정책 설계 등 기초 교육을 통해 회계사의 공공 리더십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계사가 다양한 공공 영역에서 역할을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자본시장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회계기본법 제정과 현장 개선 노력을 통해 회계사가 자본주의의 파수꾼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100조 투자’ AI 수혜주, 실적검증 본격화

NH투자증권

에프앤가이드의 실적 예상치 대비
셀바스AI·뷰노 PER 146·434배 높아
국내 AI 산업 미래 가능성에 청신호

국내 인공지능(AI) 상장사들의 밸류에이션이 실적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힘입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선 글로벌 AI 랠리에서 국내 기업들이 소외됐던 가운데, 정부의 대규모 투자 공약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국내 AI 산업의 반등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1일 NH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의 실적 예상치 대비 셀바스AI와 뷰노의 주가순이익비율(PER)은 각각 146.4배, 434.7배 수준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국내 AI 대표주자인 네이버(16.6배), 카카오(48.3배) 등과 비교해도 격차가 상당하다.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의하면 뷰노의 2025년 예상 매출액은 413억원으로 전년 동기 259억원 대비 59.5%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영업손실도 1억원으로, 지난해 125억원 대비 감소했지만 적자 축소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뷰노의 PER은 높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26년 실적 예상치를 고려했을 때,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이 가능함과 동시에 2025년 대비 매출액 41%, 순이익은 1269% 성장할 것으로 기대됐다.

더불어 셀바스AI는 지난해 영업이익 8억원에서 올해 148억원으로 1744% 급증했다. 다만 2022년부터 영업이익 흐름을 살펴봤을 때 ▲2022년 52억원 ▲2023년 41억원 등으로 지난해 실적



챗GPT로 생성한 '생각하는 AI의 모습'.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당기순이익 역시 2023년 적자로 전환됐으며, 2024년에 적자를 지속한 뒤 올해는 다시 흑자 반전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PER이 100배를 넘어가는 것은 높은 편이 맞고, 당장의 이익 수준으로는 해당 상장사들이 속한 업종 평균보다도 높다”면서도 “성장주인 만큼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는 PER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과거에는 신기술 관련주의 PER이 1000배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으면 굉장하게 올라가고, PER이 높을수록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업종에 따라 PER의 유연성도 다를 수 있는데, 성장 가능성이 높은 IT, 성장주들은 미래 가능성과 비례해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같은 제조업의 경우에는 평균 PER이

10배 정도로 형성되지만, 카카오와 같이 미래 기술에 기반하는 업종들은 기대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더 높은 PER이 용인될 수 있다는 의미다. 11일 기준 카카오의 PER은 400배를 넘어섰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AI 랠리에서 소외됐던 만큼 앞으로의 흐름이 중요하다. 지난 2022년 11월 오픈AI가 챗GPT를 공개하면서 AI 산업에 대한 관심이 크게 확대됐고, 미국을 중심으로 AI 랠리가 지속된 바 있다. 그 중심에서 주도주 역할을 한 것이 엔비디아였으며, AI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하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상승했지만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수혜를 입지 못했다.

이 연구원은 “AI 기술경쟁에서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지며 한국 주식시장은 2023년부터 진행된 글로벌 AI 랠리에서 소외됐다”며 “한국에서는 SK하이닉스 등 일부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기업들이 AI 수혜주로 부각됐으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하향 HBM 납품이 지연되며 주식시장 전체적으로는 수혜 기대가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정부가 ‘AI 투자 100조 원’과 ‘글로벌 AI 3대 강국 도약’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국내 AI 산업의 미래 가능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이 연구원은 “AI 공약 실현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5년 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약속했는데, 이는 그동안 주요 AI 강국 대비 투자 규모 부족이라는 한계가 있었던 한국 AI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하은 기자 godhe@

현대차證 배형근 사장, 자사주 6950주 매입

주당 7334원, 약 5100만원에 취득
총 2만6827주 보유, 0.04% 비율

현대차증권은 배형근 사장이 회사보통주 6950주를 장내 매수 방식으로 추가 취득했다고 11일 밝혔다.

취득 단가는 1주당 7334원, 매입 금액은 약 5100만원이다. 이번 자사주 매입으로 배형근 사장이 보유한 자사주(우리사주 포함)는 총 2만6827주로 늘었으며, 이는 발행 주식수의 0.04%다.

지난해 4월 배형근 사장은 취임한지 3개월만에 약 1억원 규모(1만1130주)의 자사주를 장내에서 매입한 바 있다. 취득 단가는 1주당 8986원이었다. 이후 올

해 3월에 진행한 유상증자 구주주 청약에서 최대 참여 가능한 배정 물량인 배정 주식의 120% 초과 청약을 진행했고, 이에 비례해 2차로 신주(8747주)를 배정받아 취득 완료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매입은 회사의 장기 성장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형근 사장은 “경영진의 자사주 매입은 단순 투자 차원을 넘어 회사 경영에 대한 신뢰와 책임을 표명하는 일”이라면서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며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한양증권 브랜드북, 뉴욕페스티벌 본상 진출

‘THE SEVEN YEAR’ 숏리스트 선정

한양증권은 자체 제작한 브랜드북 ‘THE SEVEN YEAR(7년)’가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2025 뉴욕페스티벌’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숏리스트(Shortlist)에 공식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뉴욕페스티벌은 1957년 창설된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로, 매년 70여 개국에서 수천 건의 작품이 접수된다. 약 350명의 글로벌 심사위원단이 창의성, 전략적 완성도, 브랜드 표현력 등을 기준으로 수상작을 선정하며, 수상작은 글로벌 브랜드 전략과 크리에이티브의 기준점으로 간주된다.

한양증권은 ‘THE SEVEN YEAR’로 본상 진출작에 이름을 올렸다. ‘THE SEVEN YEAR’는 한양증권의 지난 7년간 변화와 혁신을 모티브로 기획된 브랜드북으로, 브랜드 철학과 조직문화 전반의 흐름을 정제된 언어와 디자인으로 풀어냈다. 기획부터 제작, 편집, 출판까지 전 과정을 내부에서 독립 진행한 프로젝트다. 커뮤니케이션 및 브랜드 전략을 담당하는 부서(BM실)에서 제작을 담당했다. 대한민국 입선작 중 유일하게 기업 내부에서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제작하고 출품해 본상 부문에 진출했다. 특히 국내 증권사가 뉴욕페스티벌에서 자체 제작·출품작으로 Shortlist에 이름을 올린 사례는 이번이 최초다.

/신하은 기자